

四書에 나타난 유학사상의 경제관 연구

김 조 영*

<目次>

I. 서론	2. 時中과 節用으로 본 ‘소비’
II. 경제의 개념과 유학의 경제제민	3. 相生의 문제로 본 ‘분배’
III. 四書에 나타난 유학사상의 경제관	IV. 유학사상의 경제관이 갖는 의미
1. 이익과 義理의 문제로 본 ‘생산’	V. 결론

<국문 초록>

본고는 儒學의 중요 경전인 四書(대학, 논어, 맹자, 중용)에 나타난 경제관을 분석하여 산업사회 자본주의 경제학의 개념적 요소인 ‘생산’, ‘소비’, ‘분배’의 영역에 따라 고찰함으로써 전통적인 유학에 나타난 경제관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우선 ‘생산’, ‘소비’, ‘분배’의 명칭은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형성된 개념이다.

四書에 나타난 유학의 경제관에서 살펴본 ‘생산’은 사람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재화의 생산과 이익을 의미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익에 따른 옳고 그름의 윤리적인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이익’, ‘義에 맞는 이익’을 말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경제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의 문제에 있어서는 생산된 이익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時中의 부분과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節用의 부분을 들어 말하고 있다. 時中과 節用은 현

*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박사과정 / kkim1122@daum.net

대인의 무절제한 소비생활과 자원낭비를 막는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수에게 이익이 집중되지 않는 균등한 분배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相生의 의미로 사회 공동체의 안정적인 삶과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성 회복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학의 경제관을 표현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하고 나아가 국가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經世濟民’의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유학의 경제관은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관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인 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론이라 하겠다.

【주제어】 경제관, 이익, 의리, 시중, 절용, 상생, 생산, 소비, 분배

I. 서론

儒學은 수천 년 동안 동양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유학적 가치관이 근저를 이루고 있다.

유학은 사람의 인성론과 수양론, 도덕적 가치 등을 통해 인간적 삶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성이나 수양, 도덕적 가치 등의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만 인간이 먹고, 잠자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회관계의 행위인 경제적인 부분 또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현재 말하고 있는 경제학 이론은 영국의 애덤 스미스(Adam Smith)

•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 토마스 로버트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등에 의해 정립된 고전과 경제학 사상에서 출발되었으며 이후에 자본주의 초기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형성된 산업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형성된 이론체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근대 자본주의 경제학은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주의 이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국민들의 인권보장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온전히 자본가의 효율적 경제 활동과 극대한 이윤추구에 중점을 두었다.¹⁾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학은 자본가 개인의 이윤추구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주의의 성향을 갖게 되기 쉬우며, 이윤추구에 있어 도덕적 가치나 윤리적인 부분을 따지지 않으므로 사회공동체나 국가 전체로 보면 비인간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한편, 전통적인 유학의 경제관은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관과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학에서 바라보는 경제는 ‘經世濟民’이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는데 경제제민은 세상을 잘 경영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국가의 지도자인 임금이 나라 전체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여 백성 개개인에 삶은 보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관과 유학의 경제관은 그 본질적 출발이 다르다고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유학의 경제관은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의 윤리적인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다움의 정체성을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가치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유학에 나타난 경제관을 근대 자본주의 경제학의 관점으로 분석하

1) 이철승, 「선진 유가 사상에 나타난 경제와 윤리의 관계 문제」, 『동양사회사상』 제9집, 동양사회사상학회, 2004.

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행위의 측면으로 보면, 영국에서 출발한 자본주의 경제관과 유학의 경제관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경제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오늘날의 왜곡된 풍토에 대하여 전통적인 유학의 경제관은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따라서 유학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四書(대학, 논어, 맹자, 중용)**에 나타난 경제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한 근대 자본주의의 경제관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학의 경제관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경제의 개념과 유학의 경제제민

‘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물질 기초가 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과 그것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관계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의 중요한 요소인 ‘생산’과 ‘소비’, ‘분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생산’이란 어떤 재화를 변형, 개선 또는 가공하여 용도가 다른 새로운 재화로 만드는 행위를 일컬으며, ‘소비’란 주로 가계부문의 경제주체들이 소모품, 내구소비재 및 여러 가지 서비스 등이 제공하는 효용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³⁾ 그리고 ‘분배’는 생산된 재화 또는 용역이 그 사회구성원 개개인 또는 집단에 귀속되는 일이라고 한다.⁴⁾

또한 영국의 경제학자 마셜(A. Marshall)은 그의 저서 『경제학 원리』에서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 조순 외 2인, 『경제학원론』, 율곡출판사, 2003, p.150, p.504.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0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경제학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였고,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자 스티글리치(J. Stiglitz)는 경제학을 “개인, 기업, 정부 및 사회 내의 다른 조직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며, 그러한 선택이 자원의 사용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하였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우리 사회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가에 따라서 경제문제가 대두된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경제학이란 개인이나 사회가 여러 가지 용도를 가지는 희소한 자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⁵⁾ 이러한 경제학을 하나의 체계적인 독립과학으로 성립시킨 것은 1776년 스미스(Smith,A.)가 『국부론』을 출간한 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에 자본주의 초기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온전히 자본가의 극대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삼는 경제관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관은 이윤추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성이 해이해지고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초래하였다. 또한 노동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생산도구의 하나로 여기게 되어 사회적 비인간화 현상을 불러오게 된다. 이처럼 자본주의 경제관은 국가의 안정과 국민들의 곤궁함을 해소하거나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자본가의 이윤추구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다.

이에 반해 儒學의 경제 개념은 세상을 잘 경영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구제한다는 ‘經世濟民’의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유학의 경제관에서는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만들어 내는 모든 것을 利라고 보았고, 이익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풍요로운 생활과 나아가 국가의 안정을 추구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또한 利에는 공적인 利와 사적인 利가 있으며 사적인 利보다는 공적인 利의 추구를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5) 심경섭 외 7인, 『현대 경제학 입문』, 박영사, 2007, pp.4-5.

자본주의 경제관은 자본가 개인의 이윤추구를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형성된 가치관이라 한다면, 유학에서 찾을 수 있는 ‘경제제민’의 경제관은 국가의 지도자인 임금이 나라 전체의 합리적 운영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와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에게 미치는 가치관이라 하겠다. 이러한 부분이 자본주의 경제관과 유학의 경제관이 갖는 개념적 차이라 하겠다.

Ⅲ. 四書에 나타난 유학사상의 경제관

1. 이익과 義理의 문제로 본 ‘생산’

근대 자본주의 경제관 가운데 중요한 영역인 ‘생산’의 문제를 유학에서는 사람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재화의 생산을 利(이익)로 보았고, 또한 이익을 이익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한 모든 이익의 옳고 그름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포함하여 ‘이익’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매우 큰 특징이다.

례는 갑골문에 “칼로 벼 이삭을 자르는 모습”으로 표기되어 있고 『설문해자』에서는 “날카로움”으로 표기했다. 따라서 고대 중국에서는 날카로운 칼로 벼 이삭을 자르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농업생산과 관련하여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이익의 개념을 삼고 있다.⁶⁾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재화가 있는데, 衣·食·住 등일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재화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런 재화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생기고 나아가 제도와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어 사회적 관계에 계급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6) 이철승, 「선진 유가 사상에 나타난 경제와 윤리의 관계 문제」, 『동양사회사상』 제9집, 동양사회사상학회, 2004.

유학의 경제관은 재화를 생산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재물을 생산함이 큰 道가 있으니, 생산하는 자가 많고 소비하는 자가 적으며, 생산하기를 빨리하고 소비하기를 느리게 하면 재물이 항상 풍족할 것이다.⁷⁾

그뿐만 아니라 전통 유학에서는 재화를 생산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사람이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제적 생산물인 재화, 즉 이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일정한 재산이 있는 자는 일정한 도덕심을 갖고, 일정한 재산이 없는 자는 일정한 도덕심이 없는 것이니, 만일 일정한 도덕심이 없으면 放辟함과 奢侈함을 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⁸⁾

이처럼 맹자는 ‘恒産’이라는 일정한 생산물인 재화가 없으면 仁義를 추구하는 일정한 마음이 없게 되어 백성들을 교화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맹자가 말한 ‘恒産’은 백성들의 생존을 중요하게 여긴 문제였고, 이는 서양의 근대 자본주의 경제관이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보다 큰 비중을 둔 것과는 구별된다.

공자 또한 개인의 이익을 중요하게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생산에 있어 몇 가지 방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공자 말하기를 “富를 만일 구해서 될 수 있다면 말채찍을 잡는 자의 일이라도 내 또한 하겠다. 그러나 만일 구하여 될 수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⁹⁾

7) 『大學』10章, “生財有大道, 生之者衆, 食之者寡, 爲之者疾, 用之者舒, 則財恒足矣.”

8) 『孟子』, 『滕文公 上』3, “民之爲道也, 有恒産者, 有恒心, 無恒産者, 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공자 말하기를 “富와 貴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지 않았으면 處하지 않으며, 貧과 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버리지 않아야 한다.”¹⁰⁾

공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생산에 직업적 貴賤을 따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익을 구하는 방법에 있어 합리적인 방법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노동함으로써 얻은 대가를 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난함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이익을 구했다라도 가난하게 사는 경우에는 그 삶에 만족하여 安分自足 할 줄 알았다.

공자 말하기를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베개를 하더라도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의롭지 못한 富와 貴는 나에게 있어 뜬구름과 같다.”¹¹⁾

한편, 유학에서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이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어 옳고 그름의 윤리적인 측면을 함께 말하고 있다. 공자가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다.”¹²⁾라고 하여 이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익을 보면 義를 생각한다.”¹³⁾라고 하여, 유학에 있어 이익은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익 속에 義理를 긴밀하게 연계한 사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다. 공자의 뜻을 계승한 맹자 또한 이익에 앞서 仁義를 주장하고 있다.

9) 『論語』, 「述而」11, “子曰, 富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如不可求, 從吾所好.”

10) 『論語』, 「里仁」5, “子曰, 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 得之, 不處也, 貧與賤, 是人之所惡也, 不以其道, 得之, 不去也.”

11) 『論語』, 「述而」15, “子曰, 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 如浮雲.”

12) 『論語』, 「里仁」12, “子曰, 放於利而行, 多怨.”

13) 『論語』, 「憲問」13, “見利思義”

맹자가 梁惠王을 만나니 왕이 말하기를 “선생께서 천리를 멀리 여기지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왕은 하필 리를 말씀하십니까? 또한 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면 대부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며, 사·서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여,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를 취한다면 나라가 위태로운 것입니다. 만승의 나라에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천승을 가진 공경의 집안이요, 천승의 나라에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백승을 가진 대부의 집안이니, 만승에 천승을 취하며 천승에 백승을 취함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만일 의를 뒤로 하고 이를 먼저 한다면 모두 빼앗지 않으면 만족해하지 않습니다.”¹⁴⁾

맹자는 이익의 추구보다 먼저 義理의 실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왕이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왕 이하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데 힘써서 결국은 나라가 위태로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데 앞서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仁과 모든 일에 있어 옳고 그름의 윤리적인 측면인 義의 실현을 먼저 말하고 있다.

이익과 義理의 문제는 『大學』에서도 ‘나라는 리를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義를 이익으로 여긴다.’¹⁵⁾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학의 경제관은 이익과 義理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이익에 도덕적 가치를 더하여 세상의 사회질서를 강조하는 윤리적 경제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경제관은 개인의 이익만을 강조하고 자본가의 이윤추구를 강조하여 비도덕적인 이익추구에 매달린 서양의 근대 자본주의 경제관과 구별된다. 경제적 가치가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오늘날의 왜곡된 풍토가 팽배한 이때에,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모색하는데

14) 『孟子』, 「梁惠王 上」1, “孟子見梁惠王, 王曰, 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利吾國乎. 孟子對曰, 王, 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王曰何以利吾國, 大夫曰何以利吾家, 士庶人曰何以利吾身, 上下交征利, 而國, 危矣. 萬乘之國 弑其君者, 必千乘之家, 千乘之國, 弑其君者, 必百乘之家, 萬取千焉, 千取百焉, 不爲不多矣, 苟爲後義而先利, 不奪不饜.”

15) 『大學』10章, “此謂, 國, 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

있어 윤리적인 유학의 경제관은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時中과 節用으로 본 ‘소비’

유학의 경제관에서 ‘소비’는 크게 생산된 이익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時中의 문제와 절제하여 쓰는 節用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소비는 생산을 전제로 한다. 인간이 재화를 생산하여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 가에 따라 ‘소비’는 그 의미가 달라진다. 생산된 이익을 어떻게 사용하는 가에 따른 문제는 『대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仁한 자는 재물로써 몸을 일으키고, 不仁한 자는 몸으로써 재물을 일으킨다.¹⁶⁾

생산된 재물을 적절히 사용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학에서 말하는 소비의 의미이다. 다시 말해 재물을 생산하는 것은 적절히 쓰고자 함이지, 재물을 쓰지 않고 생산에만 치중하는 것은 유학의 경제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된 재화를 사용하는 주체는 위정자와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으며, 위정자는 재물을 백성과 신하들에게 사용함에 있어 厚하게 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말한다.

齋戒하고 깨끗이 하며 盛服을 하여 禮가 아니면 動하지 않음은 몸을 닦는 것이요, 讒訴하는 이를 제거하고 女色을 멀리하며 재물을 친히 여기고 德을 귀하게 여김은 어진 이를 勸勉하는 것이요, 그 지위를 높여 주고 祿을 많이 주며 좋아함과 싫어함을 함께 함은 親親을 권면하는 것이요, 官屬이 많아서 使令을 마음대로 맡기게 함은 大臣을 권면하는 것이요, 忠信으로 대하고 祿을 많이 줌은 선비들을 권면하는 것이요, 날로 살펴보고 달로 시험하여 녹봉을 공로에 따라 주는 것을 일에 맞추어 함은 百工들을 권면하는 것이요, 가는 이를 전송하고 오는 이를 맞이하며 잘하는 이를 가상히

16) 『大學』10章, “仁者, 以財發身, 不仁者, 以身發財.”

여기고 능하지 못한 이를 가엾게 여김은 먼 곳의 사람을 회유하는 것이요, 끊긴 代를 이어주고 없어진 나라를 일으켜 주며 혼란한 나라를 다스려 주고 위태로운 나라를 붙들어주며 朝會와 聘問을 때에 따라 하며 주는 것을 厚하게 하고 받는 것을 薄하게 함은 諸侯들을 은혜롭게 하는 것이다.¹⁷⁾

위정자가 백성을 위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은 厚할수록 좋으나, 자연 순환적 생산경제에 있어 한정된 재화는 소비의 절약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공자는 재물 쓰는 것에 절용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천송의 나라를 다스리되 일을 공경하고 미덥게 하며, 재물을 절약하여 쓰고 사람을 사랑하며 백성 부리기를 때에 맞게 하여야 한다.¹⁸⁾

이와 같이 공자는 한정된 재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 절용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절용의 구체적인 실천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공자 말하기를 “군자가 먹을 적에는 배부름을 구하지 않으며, 거처할 적에는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일을 민첩히 하고 말을 삼키며, 道가 있는 이에게 찾아가서 질정한다면 배움을 좋아 한다고 이를 만하다.”¹⁹⁾

공자는 합리적인 소비의 덕목을 절용으로 보았다면, 맹자는 생산된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측면에서 禮를 중심으로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17) 『中庸』20章, “齊明盛服, 非禮不動, 所以修身也. 去讒遠色, 賤貨而貴德, 所以勸賢也. 尊其位, 重其祿, 同其好惡, 所以勸親親也. 官盛任使, 所以勸大臣也. 忠信重祿, 所以勸士也. 時使薄斂, 所以勸百姓也. 日省月試, 既稟稱事, 所以勸百工也. 送往迎來, 嘉善而矜不能, 所以柔遠人也. 繼絕世, 舉廢國, 治亂持危, 朝聘以時, 厚往而薄來, 所以懷諸侯也.”

18) 『論語』, 「學而」5,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19) 『論語』, 「學而」14, “子曰,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慎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맹자 말하기를 “농지를 잘 다스리고 세금을 적게 거둔다면 백성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 먹기를 제때에 하고 쓰기를 禮대로 하면 재물을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다.”²⁰⁾

“賢君은 반드시 공손하고 검소하여 아랫사람을 禮로 대하며, 백성들에게 取함이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²¹⁾

맹자는 禮를 강조하여 위정자의 검소한 소비생활을 역설하고 백성들에게 낮은 세금을 부과하여 백성들의 건강한 경제생활을 도모함으로써 경제 질서를 바르게 확립하고자 하였다.

‘소비’에 있어 절용과 함께 중요한 영역인, 생산된 이익을 상황에 맞게 쓰는 時中의 문제에 있어 『논어』에 나타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子華가 공자를 위하여 齊나라에 심부름을 가자 冉子가 자화의 어머니를 위하여 곡식을 줄 것을 요청하니, 공자가 “釜를 주어라” 하였다. 더 줄 것을 청하자 공자가 “庾를 주어라” 하였는데 冉子가 5秉을 주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子華가 齊나라에 갈 적에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갓옷을 입었다. 내가 들으니, ‘군자는 곤궁한 자를 돌보아 주고 부유한 자를 계속 대주지 않는다.’ 하였다. 原思가 공자의 家臣이 되었는데 공자가 곡식 9백을 주자, 사양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사양하지 말고 너의 이웃과 마을 및 鄉黨에 나누어 주려무나” 하였다.²²⁾

공자는 재물이 마땅히 사용되어야 할 곳에 사용되어야 하는 時中을 중요하게 여겼다. 공자의 제자인 子華는 본래 부유하였고, 제자가 스승을 위해 심부름을 하는 것은 또한 마땅한 일이었다. 따라서 冉子가 子華의 어머니를 위해 곡식을 청하자 조금 주라고 하였고, 또 다른 제자인 原思는 자신의 노동에

20) 『孟子』, 「盡心 上」23, “孟子曰, 易其田疇, 薄其稅斂, 民可使富也. 食之以時, 用之以禮, 財不可勝用也.”

21) 『孟子』, 「滕文公 上」3, “是故, 賢君, 必恭儉, 禮下, 取於民, 有制.”

22) 『論語』, 「雍也」3, “子華使於齊, 冉子爲其母請粟. 子曰, 與之釜. 請益, 曰與之庾. 冉子與之粟五秉. 子曰, 赤之適齊也, 乘肥馬, 衣輕裘. 吾聞之也, 君子, 周急, 不繼富. 原思爲之宰, 與之粟九百, 辭. 子曰, 毋. 以與爾鄰里鄉黨乎.”

마땅히 받아야 할 급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양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처럼 공자는 각각 상황에 맞게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맹자도 역시 합리적인 재물 사용을 말하고 있다.

陳臻이 물었다. “전날에齊나라에서 왕이 兼金 100鎰을 주시자 받지 않으셨고, 宋나라에서 70鎰을 주시자 받으셨고, 薛나라에서 50鎰을 주시자 받으셨으니, 전날에 받지 않은 것이 옳다면 오늘날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요, 오늘날 받은 것이 옳다면 전날에 받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니, 夫子께서는 반드시 이중에 하나에 해당하실 것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다 옳다. 송나라에 있을 때에는 내가 장차 遠行이 있게 되었는데, 遠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노자를 주는 것이다. 말하기를 ‘노자를 드립니다.’ 하였으니, 내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薛나라에 있을 때에는 내가 경계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말하기를 ‘경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기에 兵을 위하여 드립니다.’ 하였으니, 내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齊나라에 있어서는 해당됨이 있지 않았다. 해당됨이 없이 준다면 이는 재물로 매수하는 것이니, 어찌 군자로서 재물에 籠絡당할 자가 있겠는가.”²³⁾

맹자는 명분에 맞는 재물의 소비를 보여줌으로써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를 제시해 주고 있다. 단순히 돈을 받고, 받지 않는 것으로 합리적인 소비로 여기지 않았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며, 무슨 명분으로 재물을 주는가에 따라 받고 받지 않았다. 상황에 맞으며 합리적인 명분의 재물은 합리적인 소비로 보았고, 상황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명분의 재물은 뇌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맹자는 합리적인 명분과 상황에 맞는 時中の 소비를 진정한 소비의 의미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소비’에 있어 생산된 이익을 상황에 맞게 쓰는 時中과 한정된 재화를 절약

23) 『孟子』, 「公孫丑 下」3, “陳臻, 問曰, 前日於齊, 王, 餽兼金一百而不受, 於宋, 餽七十鎰而受, 於薛, 餽五十鎰而受, 前日之不受是, 則今日之受非也, 今日之受是, 則前日之不受非也, 夫子必居一於此矣. 孟子曰, 皆是也. 當在宋也, 予將有遠行, 行者, 必以贖, 辭曰, 餽贖, 予何爲不受. 當在薛也, 予有戒心, 辭曰, 聞戒故, 爲兵餽之, 予何爲不受. 若於齊則未有處也, 無處而餽之, 是貨之也, 焉有君子而可以貨取乎.”

하여 소비하는 節用은 오늘날 무절제한 소비생활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고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전통 유학의 경제관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성립되어 생산력 증대와 소비의 확대를 주장하는 근대 자본주의의 경제관과 분별되는 부분이다.

3. 相生의 문제로 본 ‘분배’

경제관 중에 중요한 요소인 ‘분배’의 의미를 전통 유학에서는 균등한 분배와 相生의 문제로 보고 있다.

맹자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는 이익 구조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옛날에 시장에서 교역하는 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없는 물건과 바꾸면 有司가 세금을 거두지 않고 분쟁을 다스릴 뿐이었다. 그런데 賤丈夫 한 사람이 있어 반드시 壟斷을 찾아 올라가서 좌우로 바라보면서 시장의 이익을 망라하자,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따라서 그에게 세금을 징수하였으니, 장사꾼에게 세금을 징수한 것은 이 賤丈夫로부터 비롯되었다.²⁴⁾

맹자는 이와 같이 이익이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천하게 여기는 도덕의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정치는 분배의 균등에서 시작됨을 말하고 있다.

仁政은 반드시 토지의 경계를 다스림으로부터 시작되니, 경계를 다스림이 바르지 못하면 井地가 균등하지 못하고 穀祿이 공평하지 못하게 된다.²⁵⁾

맹자는 분배의 균등화가 정치의 시작이라 말하면서 또한 분배의 균등화를

24) 『孟子』, 「公孫丑 下」10, “古之爲市者, 以其所有, 易其所無者, 有司者治之耳, 有賤丈夫焉, 必求龍斷而登之, 以左右望而罔市利, 人皆以爲賤. 故, 從而征之, 征商, 自此賤丈夫始矣.”

25) 『孟子』, 「滕文公 上」3, “夫仁政, 必自經界始, 經界不正, 井地不均, 穀祿不平.”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 정전제를 주장하였다. 정전제는 토지를 우물정지(井) 모습으로 균등하게 분배하여 8집이 함께 公田을 경작하여 세금으로 내고, 또한 8집이 개인적으로 私田을 경작하여 소유하도록 한 것²⁶⁾으로 이것은 富의 편중을 막고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생산한 재화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생산수단의 균등 분배를 이루는 것으로 유학의 경제관이 갖는 매우 큰 특징이라 하겠다.

유학의 균등분배에 관한 경제관은 『논어』에서도 또한 잘 나타난다.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나라를 소유하고 집을 소유한 자는 백성이 적음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한다고 한다. 고르면 가난함이 없고 和하면 적음이 없고 편안하면 기울어짐이 없다.” 하였다.²⁷⁾

공자는 절대적 빈곤에서 오는 가난함과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고르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한 상대적 빈곤감을 사회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은 분배의 불균등에서 발생하는데, 소수의 사람에게 富가 집중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와 국가에 위기를 초래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유학의 경제관에서 말하는 균등한 분배는 사회계층 간 모든 백성이 서로 더불어 잘살아 가고자 하는 相生의 정신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대학』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孟獻子が 말하기를 “馬乘을 기르는 자는 닭과 돼지 기르기를 살피지 않고, 얼음을 쓰는 집안은 소와 양을 기르지 않고, 百乘의 집안은 聚斂하는 신하를 기르지 않으니,

26) 『孟子』, 「滕文公 上」3, “方里而井, 井九百畝, 其中, 爲公田. 八家皆私百畝, 同養公田, 公事畢然後, 敢治私事, 所以別野人也.”

27) 『論語』, 「季氏」1, “子曰, 丘也聞, 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 無貧, 和, 無寡, 安 無傾.”

聚斂하는 신하를 기르기 보다는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라.” 하였으니, 이것을 일러 ‘나라는 利를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義를 이익으로 여긴다.’는 것이다.²⁸⁾

馬乘을 기르는 자가 닭과 돼지를 기르지 않는 것은 못 길러서가 아니라 기르지 않는 것이고, 얼음을 쓰는 집안은 소와 양을 기르지 않은 것도 역시 못 길러서가 아니다. 각각 자신의 본분에 맞는 경제 행위를 함으로서 馬乘을 기르는 자와 닭과 돼지를 기르는 자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상생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균등한 분배와 더불어 사는 相生의 경제관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질서를 바로잡고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윤리적인 경제관이라 하겠다.

IV. 유학사상의 경제관이 갖는 의미

근대 자본주의 경제관은 극대한 이윤추구와 경쟁원리만을 강조한 나머지 무절제한 생산과 소비로 인하여 불합리한 시장구조가 형성되고,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사회의 비윤리적, 비인간적인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관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기능을 앞에서 살펴본 유학의 경제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학에서 말하는 경제관은 이익을 위한 이익이 아닌, 義에 맞는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자본가와 노동자가 함께 이익을 누리게 되는 상생의 경제 활동을 하게 되어 비윤리적, 비인간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어진 상황에 맞으며 명분 있는 합리적 소비생활을 지향하여 인간이 보다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관은 오늘

28) 『大學』10章, “孟獻子曰, 畜馬乘, 不察於鷄豚, 伐冰之家, 不畜牛羊, 百乘之家, 不畜聚斂之臣, 與其有聚斂之臣, 寧有盜臣, 此謂, 國, 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

날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 자본주의 경제관을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론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학의 경제관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 흐름에 대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념을 제시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의 모습은 자본가의 극대한 이익추구를 바탕으로 모든 일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고 무한 경쟁을 통해 물질적 번영을 이루었다. 이러한 물질적 번영은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가 불러온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윤리적 측면이 강한 유학의 경제관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학의 경제관에 나타난 균등한 분배, 합리적 소비, 더불어 사는 상생의 사상을 바탕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의 이념을 수립하고 나아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경제정책을 실행한다면 유학의 경제관은 현대 경제 정책에 대한 합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V. 결 론

본고는 유학사상 중에서 四書(대학, 논어, 맹자, 중용)에 나타난 경제관을 분석하여 자본주의 경제관에서 말하는 ‘생산’, ‘소비’, ‘분배’의 영역을 중심으로 유학의 경제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생산’, ‘소비’, ‘분배’의 명칭은 자본주의 경제관에서 형성된 개념으로 유학에서 보이는 경제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생산’, ‘소비’, ‘분배’는 일반화된 경제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유학에서 보이는 경제관을 살펴보았다.

四書에 나타난 유학의 경제관에서 ‘생산’은 사람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재화의 생산과 이익을 의미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익에 따른 옳고 그름의

윤리적인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이익’, ‘義에 맞는 이익’을 말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경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의 문제에 있어서는 생산된 이익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時中의 부분과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節用의 부분을 들어 말하고 있다. 이는 현대인의 무절제한 소비생활과 자원낭비를 막는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수에게 이익이 집중되지 않는 균등한 분배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의미로 사회공동체의 안정적인 삶과 인간성 회복에 의미가 있다.

자본주의 경제관은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형성된 이론이다.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무한경쟁을 통해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자본가의 극대한 이윤추구에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제관은 오늘날에 이르러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관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경제관을 확립하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이론을 전통적인 유학의 경제관에서 찾아보았다.

<參考 文獻>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성백효 역, 『대학·중용 집주』, 전통문화연구회, 2005.

성백효 역, 『논어 집주』, 전통문화연구회, 2005.

성백효 역, 『맹자 집주』, 전통문화연구회, 2005.

변형윤 · 권광식, 『경제사상과 이론』, 한국방송대출판부, 2003.

조순 외 2인, 『경제학원론』, 을곡출판사, 2003.

심경섭 외 7인, 『현대 경제학입문』, 박영사, 2007.

김태명, 「유가의 경제사상에 관한 연구」, 『유라시아연구』 제6권 제4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9.

손병해, 「원시유가의 경제사상과 그 현대적의의 -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보정기능을 중심으로-」, 『유교문화연구』 제18집,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2011.

이철승, 「선진 유가 사상에 나타난 경제와 윤리의 관계 문제」, 『동양사회사상』 제9집, 2004.

Abstract

*A Study on Economic Perspectives of Confucianism
by Analyzing the Four books
/ Kim Jo-young**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modern value of economic perspectives in traditional confucianism by analyzing the relating statements on the Four books(Great Learning, Doctrine of the Mean, Analects, Mencius) into three concepts - production, consumption, distribution - considered to be the basic economic activities of modern capitalism industry society.

First of all, from the point of view of "production", which is more close to producing profits, the most remarkable value the Four books suggest is "righteousness " differentiating with a general commercial activity prioritizing the quantity of profit regardless of morality.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ption", the concepts of "thrifty" and "timeliness" are the most important implied principles.

Third, in case of "distribution", "fairness" for the purpose of coexistence is the most important value in order to make stable environment in which everyone of the society could strive for the recovery of innate good-human nature without any difficulties on living.

In conclusion, the economic view of traditional Confucianism that emphasizes the accompanied growth by making righteous profits, timely consuming for the right purpose while living in frugality, fair distribution of wealth still gives implications to modern capitalism industry society having troubles with polarization, domineeringness of a few huge capital, gradual loss of humanity causing lots of anti-human crimes.

* Kongju National University / kkim1122@daum.net

【Key words】 Economic perspective(經濟觀), Profits(利益), Righteousness(義理), Timeliness(時中), Thrifty(節用), coexistence(相生), Production(生産), Consumption(消費), Distribution(分配)

투고일 : 5월 9일, 심사일 : 6월 2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